

기술분석보고서 IT

나래나노텍(137080)

- 요약
- 기업현황
- 시장동향
- 기술분석
- 재무분석
-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서울평가정보(주) 작성자 박진희 책임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공개 상태일 수 있습니다.
-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3449-145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래나노텍(137080)

코팅·포토 공정기술과 맞춤형 엔지니어링 역량을 보유한 첨단 제조장비 전문기업

기업정보(2026.08.20 기준)

대표자	김민호, 김추호
설립일자	1995년 12월 11일
상장일자	2022년 2월 8일
기업규모	중소기업
업종분류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OLED용 평판 디스플레이(FPD)
주요제품	공정 장비, 이차전지용 배터리 전극 공정 장비 및 물류 자동화 장비 등

시세정보(2026.08.20 기준)

현재가(원)	6,600
액면가(원)	500
시가총액(억 원)	707
발행주식수	10,709,949주
52주 최고가(원)	7,080
52주 최저가(원)	2,860
외국인지분율	2.35%
주요주주	김민호 외 12인

■ OLED 장비를 핵심 축으로 배터리·반도체·전장으로 사업영역 확대 중

나래나노텍(이하, '동사')은 OLED용 FPD 공정장비를 중심으로 성장하였고, 고객별 공정조건에 맞춘 정밀 도포·코팅, 포토, 잉크젯 및 합착장비를 핵심으로 이차전지 전극 코팅·건조, PLP 반도체 패키징, 자동차용 Free Shape 디스플레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중장기 경쟁력은 디스플레이 고객과의 장기 공급 경험 및 맞춤형 기술대응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신규 전방산업과 해외 고객으로 수주 기반을 넓혀 고객 및 산업 의존도를 완화하는 데 있다고 판단된다.

■ 고세대 OLED 투자 확대에 따른 공정장비 시장의 성장 기회와 수주 변동성이 병존

목표시장은 OLED 패널 제조용 정밀 코팅·포토 공정장비 시장으로, 패널 업체의 신규 생산라인 투자와 증설·공정전환에 따라 수요가 발생한다. 대면적 기관 처리, 정밀 도포·정렬, 수율 및 생산성 확보가 핵심 경쟁요소로 기술적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다. 2026년 글로벌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투자는 OLED 장비 중심으로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장비 수요 확대가 기대되지만, 투자 수요가 일부 패널업체와 고세대 라인에 집중돼 수주 변동성이 크고 중국 업체의 기술 내재화와 경쟁 심화 가능성도 있다.

■ OLED 기반 정밀 공정기술을 바탕으로 신사업·해외시장 확대와 주주 환원 강화를 병행 중

동사는 정밀 코팅·건조·인쇄 기술 기반의 반도체 패키징, 이차전지, 자동차 전장,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미국·폴란드 등 해외 고객 대응 거점도 강화됐다. 향후 고세대 IT OLED 설비투자 확대와 PLP, 차세대 배터리, 태양전지 공정의 상용화가 성장기회로 작용할 수 있으나, 신규 사업의 반복 수주와 양산 적용 여부, 중국 현지 장비업체와의 경쟁 심화는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2026년부터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여 주주환원을 추진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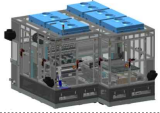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23	529.3	-39.9	-149.9	-28.3	-132.8	-25.1	-13.2	-7.4	85.0	-1,201	8,459	N/A	0.8
2024	404.3	-23.6	-221.1	-54.7	-171.4	-42.4	-20.2	-9.9	126.9	-1,550	6,912	N/A	0.6
2025	545.0	34.8	-88.4	-16.2	399.6	73.3	41.5	21.5	70.8	3,613	10,520	1.1	0.4

기업경쟁력

고객 맞춤형 장비 엔지니어링 역량	고객별 기판 크기·소재·공정조건과 생산성을 반영해 비규격 장비를 설계·제작하고 실제 양산라인에 최적화할 수 있는 프로젝트 수행능력 보유
공정기술 통합 및 응용 확장 역량	코팅·이송·인쇄·열처리·합착 등 여러 공정기술을 하나의 장비 시스템으로 구현하고 이를 디스플레이에서 배터리·반도체·전장 등으로 확장 가능
연구개발·지식재산 기반의 기술 내재화	장기간의 기술연구소 운영과 핵심 부품·공정 개발, 특허 축적을 통해 외부 기술 의존도를 낮추고 신규 장비의 자체 개발 기반 확보

핵심 기술 및 적용제품

정밀 도포·포토 공정 기술	대면적 기판에 기능성 소재를 균일하게 도포하고 패턴 형성 공정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기술로 OLED용 Coater-Photo Track 및 PLP 코팅장비 등에 적용	
잉크젯·정밀 합착 및 비정형 처리 기술	소재의 정밀 토출·인쇄와 기판 위치·갭·압력을 제어하는 기술로 Inkjet Printer, OCR/OCA Bonding Line 및 자동차용 Free Shape 디스플레이 장비에 적용	
이차전지 전극 코팅·고속 건조 기술	전극 소재의 균일 도포와 건조 효율을 높이는 기술로 습식·건식 전극 코팅장비, 전고체전지용 장비 및 Flash 광건조 시스템에 적용	

시장경쟁력

OLED 설비투자 확대에 대응하는 주력시장 포지션	글로벌 OLED 고세대 생산라인 투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코팅·포토 등 핵심 공정 장비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해 관련 설비투자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위치 확보
양산 레퍼런스와 고객 인증 기반의 진입장벽	디스플레이 장비의 국산화와 양산 공급 경험을 축적해 신규 경쟁사가 단기간에 확보하기 어려운 고객 신뢰와 공정 검증 실적 보유
전방산업 및 해외시장 다변화 가능성	기존 OLED 고객 기반으로 해외시장과 배터리·반도체·자동차 전장·태양전지로 수요처를 확대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고객 및 산업 의존도를 분산할 여지 존재

VRIO 분석 (VRIO Analysis)

VRIO(브리오) 분석이란 기업이 보유한 경영자원과 활용 능력을 가치(Value), 희소성(Rarity), 모방 가능성(Imitability), 조직(Organization)이라는 기준으로 분석하는 도구

			
가치(Value)	희소성(Rarity)	모방가능성(Imitability)	조직(Organization)
OLED 정밀 코팅·포토·잉크젯·합착 기술을 고객별 공정에 맞춰 통합 장비로 구현하고 이를 배터리·반도체·전장 등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사업적 가치를 보유한다.	대면적 OLED 장비의 국산화·양산 경험과 장기간의 고객 공동개발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복수 공정기술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 수준의 희소성이 존재한다.	장비 자체는 경쟁사가 개발할 수 있으나 축적된 공정 노하우, 고객 인증, 양산 대응 경험 및 특허 포트폴리오는 단기간에 복제가 어려워 모방장벽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기술연구소와 개발조직, 해외 영업·C/S 거점 및 주문형 장비 개발체계를 갖춰 보유기술을 실제 수주와 신규 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조직적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I. 기업 현황

OLED 장비를 핵심 축으로 유지하면서 배터리·반도체·전장·태양전지로 사업영역 확대 중

동사는 OLED용 FPD 공정장비를 중심으로 성장하였고, 고객별 공정조건에 맞춘 정밀 도포·코팅, 포토, 잉크젯 및 합착장비를 핵심으로 이차전지 전극 코팅·건조, PLP 반도체 패키징, 자동차용 Free Shape 디스플레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생산과 판매는 대형 비규격 장비의 프로젝트형 수주 방식이 중심으로, 고객과의 직접 기술협업과 입찰을 통해 수주한 뒤 설계·제작·설치·검수를 거쳐 매출이 인식되며, 장비 공급 이후 C/S와 부품·소모품 매출이 이를 보완한다. 중장기 경쟁력은 디스플레이 고객과의 장기 공급 경험 및 맞춤형 기술대응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신규 전방산업과 해외 고객으로 수주 기반을 넓혀 고객 및 산업 의존도를 완화하는 데 있다고 판단된다.

■ 기업 개요

동사는 1995년 12월 법인으로 설립되어 디스플레이 제조공정에 필요한 정밀 장비를 중심으로 사업기반을 구축했고, 2022년 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OLED용 FPD(Flat Panel Display) 공정장비를 핵심으로 이차전지 전극 공정장비, 반도체 패키징 공정장비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사업모델은 고객사의 생산공정과 투자계획에 맞춘 주문형 제조장비를 설계·제작해 공급하는 것이다. 장비는 고객별 공정조건과 사양에 따라 제작되는 비규격 제품이 대부분이며, 수주 이후 장비 설계와 부품 조달, 가공·조립, 설치 및 고객 검수 과정을 거쳐 매출로 인식된다. 장비 공급 이후에는 C/S, 부품·소모품 공급에서도 매출이 발생한다.

주요 제품은 디스플레이 패널 및 모듈 제조용 정밀 도포·코팅장비와 포토 공정장비, 잉크젯 설비, OCR(Optically Clear Resin) 합착장비이며,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습식 전극 코팅장비와 전고체전지용 건식 코팅장비, 광건조로를 공급하고 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PLP(Panel Level Packaging) 코팅장비를 사업화하고 있으며, 자동차용 Free Shape 디스플레이 코팅장비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코팅·프린팅 장비, 스마트윈도 코팅장비도 사업영역에 포함된다.

국내 생산설비와 함께 해외 사업거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 1분기 기준 폴란드법인은 이차전지 사업을 위한 제조센터와 현지 영업·C/S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고객의 현지 생산라인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반면, 개별 프로젝트 규모와 일정 변화가 생산효율 및 매출 인식 시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특성을 갖는다.

고객군은 디스플레이 패널 및 모듈 제조사를 중심으로 배터리와 반도체 등 대규모 생산설비 투자를 집행하는 제조기업으로, LG디스플레이·삼성디스플레이와 중국 BOE·HKC 등이 주요 거래처이다. 핵심 경쟁력은 디스플레이 장비 사업에서 확보한 정밀 도포·코팅 및 포토 공정 대응능력, 고객별 사양에 맞춘 장비 설계 역량, 기술지원 능력으로 판단된다. 특히 하나의 정밀 코팅 기술을 디스플레이뿐 아니라 반도체·배터리·태양전지 공정으로 확장할 수 있어 사업 다각화가 가능하다. 동사는 디스플레이 장비를 핵심 매출기반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해 고객 및 전방산업 의존도를 분산하는 방향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전환하고 있다.

[표 1] 동사의 주요 연혁

년도	내용
1995.12	법인 설립(법인명: (주)나래)
2000.08	(주)나래, 나래엔지니어링(주)을 합병
2000.09	(주)나래, (주)나래나노텍으로 회사명 변경
2012.12	지식경제부장관 표창(인쇄공정시스템 구축)
2014.08	디스플레이 산업발전 유공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9.11	인쇄전자 산업발전 유공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9.11	나래무역(광주)유한공사 설립(중국, 광저우)
2022.02	코스닥 시장 상장
2023.07	폴란드 법인 설립
2024.06	미국 법인 설립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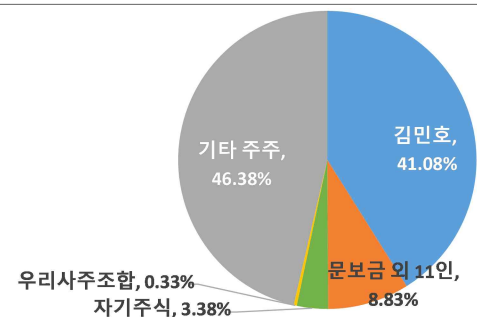
■ 주주 현황

2026년 7월 기준 동사의 최대주주는 김민호로, 전체 발행주식(10,709,949주) 중 4,400,000주의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보통주 지분의 41.08%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문보금 외 11인의 특수관계자가 945,026주(8.83%)의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지분을 합계는 49.91%이다. 한편, 동사는 자기주식 361,983주를 보유하고 있고, 우리사주조합이 35,7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4,967,240주(46.38%)는 기타 주주가 보유하고 있다.

동사의 지배구조는 최대주주를 중심으로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결집된 오너경영 구조로, 2026년 자기주식 소각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취득으로 최대주주 측 지분율이 상승했고, 자기주식의 처분 및 보유를 고려하면 지배구조의 안정성은 강화되었다. 기취득 자기주식을 소각한 뒤 재차 자기주식을 취득한 점은 주주환원 정책을 추진하고 유통주식 수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향후 신규 취득 자기주식의 소각 또는 처분 여부와 최대주주 측의 추가 지분 변동이 지배구조와 주주환원 정책을 판단하는 주요 확인사항이 될 전망이다.

[표 2] 동사의 주요 주주 현황(보통주 기준)

주주명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관계
김민호	4,400,000	41.08%	최대주주
문보금 외 11인	945,026	8.83%	특수관계인
자기주식	361,983	3.38%	
우리사주조합	35,700	0.33%	
기타 주주	4,967,240	46.38%	
합계	10,709,949	100.00%	



자료: 동사 반기보고서(2026.08), 자기주식취득결과보고서/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2026.07),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사업 영역

디스플레이 장비는 동사의 핵심 사업으로, OLED 패널 및 모듈 제조에 필요한 정밀 도포·코팅장비와 포토 공정장비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주요 제품은 코팅장비, 포토장비, 잉크젯 설비, OCR·OCA(Optically Clear Adhesive) 합착장비 등으로, 패널 전공정부터 일부 모듈 공정까지 대응하고 있다. 장기간 장비 공급을 통해 축적한 고객별 공정 대응 경험과 맞춤형 설계능력이 주요 경쟁력이며, 현재 매출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 동사의 실적과 기술 기반을 지탱하는 주력 사업으로 판단된다.

이차전지 장비는 사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주요 성장 사업으로, 습식 전극 코팅장비와 전고체배터리용 건식 코팅장비, 광건조로 등을 공급하고 있다. 전극 제조 시 활물질의 균일한 도포와 안정적인 건조가 품질과 생산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동사는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확보한 도포·코팅 기술을 배터리 전극 공정으로 확장하며, 습식 공정뿐 아니라 건식전극과 전고체전지 등 차세대 제조방식까지 대응 범위를 넓히고 있다. 다만 고객사의 증설 및 투자에 따라 수요가 좌우되므로 반복 수주 여부가 향후 성장성을 결정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도체 패키징 사업은 PLP 공정용 코팅장비를 중심으로 육성하고 있는 성장 사업이다. 동사는 디스플레이 대면적 기관에서 축적한 정밀 코팅 및 건조 기술을 반도체 후공정에 적용하고 있으며, 해외 반도체 패키징 기업과 장비 공급 및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매출기여도는 제한적이나 기존 기술과 연계성이 높고 반도체 후공정이라는 신규 전방산업으로 고객 기반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중요도가 높은 사업이다.

자동차 전장 사업은 적용처를 차량용 디스플레이로 확대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형상과 곡률에 대응하는 Free Shape 코팅장비를 중심으로 추진 중이다. 차량용 디스플레이의 대형화·곡면화로 복잡한 형상의 기관을 정밀하게 처리하는 기술의 중요성이 증가하며, 동사는 코팅·인쇄·합착 기술을 차량용 공정으로 확장하고 있다. 양산 전 테스트 및 고객 검증 단계가 포함돼 있고, 기존 기술을 활용할 수 있어 사업 확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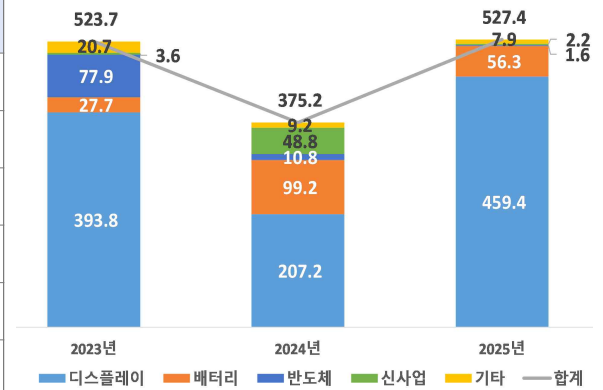
기타 사업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와 스마트윈도우 코팅·프린팅 장비를 중심으로 하며, 장비 공급 이후 발생하는 C/S와 부품·소모품 사업도 포함한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와 스마트윈도우는 기능성 소재의 균일 도포와 건조·경화가 중요해 동사의 정밀 코팅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영역으로, 현재는 신규 시장과 고객 레퍼런스를 확보하는 단계로 판단된다.

동사의 사업부문은 전방산업별로 구분되지만 기술적으로는 정밀 도포·코팅과 공정제어라는 공통 기반을 공유한다. 디스플레이 사업에서 축적한 대면적 기관 처리와 코팅·인쇄·합착 기술을 이차전지 전극, 반도체 패키징, 차량용 디스플레이 및 태양전지로 확장하는 구조다.

[표 3] 동사의 제품 매출 실적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구분	2023년	비중	2024년	비중	2025년	비중
디스플레이	393.8	75.2%	207.2	55.2%	459.4	87.1%
배터리	27.7	5.3%	99.2	26.5%	56.3	10.7%
반도체	77.9	14.9%	10.8	2.9%	1.6	0.3%
신사업	3.6	0.7%	48.8	13.0%	2.2	0.4%
기타	20.7	3.9%	9.2	2.4%	7.9	1.5%
제품 매출 합계	523.7	100.0%	375.2	100.0%	527.4	100.0%



자료: 동사 반기보고서(2026.08),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판매조직 및 판매전략

동사의 판매조직은 본사 영업본부와 중국법인, 폴란드법인으로 구성된다. 본사 영업본부는 국내외 OLED·반도체·배터리 및 신규 품목의 영업·지원·관리를 담당하며, 중국법인은 중국 고객에 대한 영업지원 및 C/S를 수행한다. 폴란드법인은 이차전지 사업의 현지 제조센터 역할과 함께 영업 및 C/S 업무를 담당한다. 신규 장비의 경우 연구·기술조직과 영업조직이 함께 고객 공정조건을 검토하는 기술영업 형태를 취하고 있어 단순 제품 소개보다 장비 사양 제안과 공정 대응이 고객 확보의 핵심 과정으로 작용한다.

판매경로는 대리점이나 간접 유통망보다 최종 수요기업과 직접 거래하는 구조다. 고객과 생산공정 및 장비 사양을 협의하고 기술검토를 거친 뒤 경쟁사 간 입찰을 통해 수주하는 방식이며, 장비의 제작일정과 세부 사양이 계약의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한다. 대형 장비 중심이어서 주문을 받은 이후 거래가 최종 완료되기까지 평균 1년 이상이 소요되는 프로젝트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수주 시점과 매출 인식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고객의 투자일정 또는 검수 일정 변경이 분기별 실적 변동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경쟁전략은 고객별 공정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기술제안과 장비 커스터마이징, 납품 이후 기술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존 디스플레이 고객과의 장기간 공급 경험을 신규 장비 수주의 레퍼런스로 활용하면서 반도체·태양전지 등 신규 전방산업으로 영업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중장기 판매전략의 핵심으로 판단된다.

II. 시장 동향

고세대 OLED 투자 확대에 따른 공정장비 시장의 성장 기회와 수주 변동성이 병존

목표시장은 OLED 패널 제조용 정밀 코팅·포토 공정장비 시장으로, 패널업체의 신규 생산라인 투자와 증설·공정전환에 따라 수요가 발생한다. 대면적 기판 처리, 정밀 도포·정렬, 수율 및 생산성 확보가 핵심 경쟁요소로 기술적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다. 2026년 글로벌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투자는 전년 대비 53%, OLED 장비 투자는 7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정밀 코팅·포토 장비 수요 확대가 기대되지만, 투자 수요가 일부 패널업체와 고세대 라인에 집중돼 수주 변동성이 크고 중국 업체의 기술 내재화와 경쟁 심화 가능성도 존재한다.

■ OLED 패널 제조용 정밀 코팅·포토 공정장비 시장의 특성

동사의 목표시장은 OLED 패널 제조용 정밀 코팅·포토 공정장비 시장으로, OLED 패널 생산과정에서 감광재·폴리이미드 등 기능성 소재를 기판에 균일하게 도포하거나 포토 공정을 통해 회로 및 패턴을 형성하는 제조장비 시장이다. 최종 수요는 IT기기,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OLED 패널에서 발생하며, 직접적인 장비 수요는 패널업체가 신규 생산라인을 건설하거나 기존 라인을 증설·전환할 때 발생한다.

목표시장은 전형적인 프로젝트형 자본재 시장이다. 패널업체가 생산할 제품의 크기, 기판 세대, 공정방식 및 목표 처리량을 결정하면 이에 맞춰 장비 사양이 확정되고, 장비업체는 공정 테스트와 성능 검증을 거쳐 양산라인에 진입한다. 신규 생산라인은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건설되기보다 수년 단위 주기에 따라 투자가 진행되어 장비 수요는 변동성이 높으나, 특정 공정에서 검증을 통과한 업체는 품질과 수율 안정성이 중요한 후속 투자에서도 공급기회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어 초기 레퍼런스와 고객 인증이 경쟁구조에서 중요하다.

기술적 진입장벽은 높은 편이다. 디스플레이용 포토 공정은 대형 기판을 처리하면서 미세 패턴의 정렬 정밀도와 생산성을 함께 확보해야 하며, 코팅 공정도 기판 전체에 일정한 두께의 막을 형성하면서 처리속도와 수율을 유지해야 한다. 기판 세대가 높아질수록 처리 면적이 확대되기 때문에 장비의 기계적 정밀도뿐 아니라 소재 토출, 막두께 제어, 건조 및 공정 균일성 확보가 중요해진다. 장비 오류가 패널 수율과 원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생산라인에서 검증된 성능과 유지보수 대응력이 공급업체 선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OLED 제조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장비 경쟁의 기준도 변화하고 있다. 기존 FMM(Fine Metal Mask) 기반 증착뿐 아니라 포토 패터닝과 잉크젯 방식이 차세대 픽셀 형성 기술로 병행 개발되고 있다. 2026년 기준 일부 중국 패널업체는 포토 패터닝 및 RGB(Red, Green, Blue) 잉크젯 방식의 양산 적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 패널업체도 포토 패터닝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다만 FMM 이외 공정은 양산수율 확보가 주요 과제로 남아 있어 특정 공정기술의 보급 속도와 최종 표준화 여부가 관련 장비시장 성장 속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장비 가격은 기판 크기, 공정 정밀도, 처리량, 자동화 수준, 공정모듈 구성 및 고객 요구사항에 따라 달라지는 주문형 구조가 일반적이며, 업체 간 경쟁에서는 장비 단가 외에 생산수율, 처리속도, 유지보수 및 장기안정성이 종합적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시장 진입 이후에도 지속적인 공정 고도화와 고객라인 대응이 요구되며, 패널업체의 투자축소 또는 특정 공정방식 변경 시 기존 장비업체의 수주가 빠르게 변동할 수 있다.

관련하여 2026년 글로벌 디스플레이 장비 CAPEX 투자 중 OLED 비율은 76%로 2025년 66% 대비 증가하며 디스플레이 장비 투자를 견인하였고, 유기재료 증착·잉크젯, 봉지(Encapsulation), Laser Lift-Off 등 AMOLED 핵심 공정장비를 포함하는 글로벌 AMOLED FP(Frontplane) 장비시장은 2026년 17억 달러에서 2030년 21억 달러로 연평균 5.4%의 성장이 전망된다.

■ 핵심 트렌드 및 시사점

목표시장에서는 투자 중심축이 LCD 증설에서 OLED 신규 생산능력과 기술전환으로 이동하고 있다. 최신 전망에서는 2026년 글로벌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지출이 전년 대비 53% 증가하고, 이 가운데 OLED 장비 투자는 77% 증가하는 반면 LCD는 1%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23~2030년 누적 글로벌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투자에서도 OLED가 76%, LCD가 21%, Micro-OLED가 3%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OLED 장비투자의 중심은 스마트폰용 6세대 라인에서 IT용 중형 패널을 생산하는 8세대 후반급 라인으로 확대되고 있고, 대면적 기판에 대응하는 정밀 코팅·포토 및 관련 공정장비 수요 확대에 우호적인 요인이다.

기술 측면에서 생산성 개선을 위한 고세대화와 픽셀 형성방식의 다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8.6~8.7세대 기판은 기존 모바일 OLED 라인보다 큰 원장을 활용해 노트북·모니터용 패널의 생산효율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고, 신규 라인을 중심으로 FMM 증착, 포토 패터닝, 잉크젯 등 서로 다른 제조기술이 검토되고 있다. 일부 업체가 포토 패터닝과 잉크젯 방식의 양산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기존 증착 중심 장비구성 이외의 코팅·인쇄·포토 공정장비에 새로운 수요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신규 공정은 양산수율과 장기 신뢰성 확보 여부가 보급 속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기술 방향이 단기간에 하나의 방식으로 수렴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정책 환경도 국내 OLED 설비투자에 우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2026년 7월 국내 정책금융기관은 차세대 OLED 신기술 고도화를 위한 약 3조 원 규모의 설비투자 사업에 1조 3,000억 원의 저리대출 지원을 승인했다. 관련 정책에서는 OLED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와 국내 장비·소재 생태계 파급효과가 지원 배경으로 제시됐으며, 디스플레이 시장 내 OLED 비중이 2023년 36.1%에서 2028년 41.3%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 주요 패널업체의 대규모 투자가 실제 장비 발주로 이어질 경우 국내 공정장비 공급망에도 수요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국 패널업체의 투자가 확대되면서 시장기회와 경쟁 압력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2026년 OLED 장비투자 확대의 주요 프로젝트에는 Visionox, CSOT, Tianma 등 중국 업체의 신규 라인이 포함돼 있으며, BOE도 8.6세대 IT OLED 양산을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 업체의 생산능력 확대는 장비 발주 물량 증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중국 내 장비 공급망 육성 및 기술 내재화가 병행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한국·일본 등 기존 장비 공급업체와 중국 현지 장비업체 간 가격 및 기술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OLED 설비투자 확대는 동시에 정밀 코팅·포토 장비 수주 기회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중국 패널업체의 차세대 라인 투자와 디스플레이 외 분야의 신규 고객 확보도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반면 상위 고객에 대한 매출 집중도가 높고 장비 프로젝트의 수행기간이 길어 고객사의 CAPEX 지연이나 검수 일정 변경에 따른 실적 변동성이 존재한다.

[그림 1] 글로벌 디스플레이 장비 CAPEX 투자 (단위 : %) [그림 2] 글로벌 AMOLED FP 장비 시장 (단위 : 억 달러)



자료: Counterpoint Research,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III. 기술분석

정밀 코팅·공정통합 기술 기반으로 디스플레이에서 배터리·반도체·전장으로 적용영역 확장

동사는 OLED 디스플레이 장비에서 축적한 정밀 도포·코팅, 포토·열처리, 잉크젯 인쇄, 정밀 합착 기술을 기반으로 고객별 생산공정에 맞는 장비를 설계·제작하고 있으며, 이를 이차전지·반도체 패키징·자동차 전장·태양전지 등으로 확장하고 있다. 연구개발은 신규 장비와 핵심 부품의 내재화, 배터리 고속 코팅·건조, 잉크젯·R2R 공정 등 실제 사업과 연계된 응용·사업화형 과제를 추진하는 구조이며, 장기간의 고객 공동개발 경험과 선행기술을 양산장비로 연결하는 역량이 강점이다. 지식재산권도 코팅·이송·열처리·인쇄·합착·배터리 공정 등 생산장비의 핵심 요소기술을 중심으로 축적돼 있다.

■ 핵심 보유기술 및 특장점

동사의 기술 경쟁력은 OLED 디스플레이 장비에서 축적한 정밀 코팅·도포, 포토·열처리, 인쇄·패터닝, 합착 기술을 고객의 생산공정에 맞게 장비로 구현하는 능력에 기반한다. 표준 장비를 일괄적으로 판매하기보다 기판 크기와 형상, 소재 특성, 생산속도 등 고객 조건에 맞춰 장비를 설계하는 방식이며, 이러한 기술을 이차전지·반도체 패키징·자동차 전장·태양전지 분야로 확대하고 있다.

정밀 도포·대면적 코팅 기술은 동사의 가장 중요한 기반 기술이다. 액상 소재를 기판 전체에 일정한 두께로 고르게 도포하는 기술로, 대형 OLED 기판뿐 아니라 곡면이나 다양한 형상의 기판에도 적용할 수 있다. Air Floating 방식의 비접촉 이송, 가변폭 코팅, Multi-Die 구조 등을 활용해 대면적·비정형 기판에 대응하는 것이 특징이다.

포토·열처리 및 잉크젯 인쇄 기술도 주요 경쟁력이다. 디스플레이 패턴 형성에 필요한 Photo Track과 고점도 소재용 Coater/Oven을 개발해 왔으며, 잉크젯을 이용해 필요한 위치에 소재를 직접 정밀하게 인쇄하는 기술도 확보하고 있다. 특히 8세대급 대면적 기판과 고점도 소재까지 대응 범위를 확대해 온 점은 단순 코터 제작보다 도포 이후 열처리와 공정 안정성까지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으로 평가된다. 이를 통해 기존 디스플레이뿐 아니라 기능성 필름, 전자회로, 태양전지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정밀 합착 및 비정형 디스플레이 기술은 디스플레이 모듈과 자동차 전장 분야에 활용된다. OCR·OCA를 이용해 패널과 커버 등을 정밀하게 붙이는 기술로, 대형·곡면 디스플레이까지 대응하고 있다. 차량용 Free Shape 디스플레이 확대와 연계될 수 있다.

이차전지 전극 코팅·고속 건조 기술은 기존 정밀 코팅기술을 에너지 산업으로 확장한 핵심 성장기술이다. 습식 전극 코팅뿐 아니라 전고체전지용 건식 코팅과 광원 기반 건조공정까지 장비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고로딩 전극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Flash 광원 건조시스템과 광원별 출력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다채널 Power 제어기술 등을 개발하고 있다. 이차전지 사업은 단순히 기존 디스플레이 코터를 전용하는 수준보다 별도의 공정기술을 축적하는 단계로 판단된다.

[그림 3] 동사의 이차전지 전극 Coating/Drying 기술



자료: 동사 홈페이지,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연구개발 역량

동사의 연구개발 체계는 단기적인 개별 장비 개발보다 고객 공정의 요구사항을 장비기술로 구현하고 이를 신규 산업으로 확장하는 응용·사업화형 연구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술연구소는 1998년 설립됐으며, 기존 제품의 성능 개선과 신규 장비 개발을 병행하는 장기적인 연구개발 기반을 운영하고 있다. 주문형 장비산업에서는 고객 생산라인의 공정조건을 이해하고 이를 실제 양산설비로 구현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장기간 축적된 장비 개발 경험 자체가 연구개발 역량의 중요한 요소로 판단된다.

연구개발은 신규 완성장비 개발뿐 아니라 핵심 요소부품의 자체 기술 확보와 신공정 개발을 동시에 수행하는 구조로, 외부 부품을 단순 조립하는 장비업체보다 장비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까지 직접 개선할 수 있는 연구체계를 지향하고 있다. 연구개발의 또 다른 특징은 개발과 사업화가 비교적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이다. 자체 연구과제에는 Battery 코팅·건조 장비, Soluble OLED용 Inkjet, 차량용 OCR Bonding Line, 박막 코팅, PI Coater/Oven, Photo Track 등 현재 사업 또는 신규 사업과 직접 연계되는 과제가 다수 포함돼 있다. 과거 LTPS Photo Track과 LCD Photoresist Coater의 국산화, AMOLED용 PI Coater의 양산기술 개발, 대형 OCR Bonding Line 및 대면적 인쇄·코팅장비 개발 등 실제 사업화로 이어진 과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일부 선행기술은 Pilot 장비 단계에서 후속 상용화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 연구개발과제를 활용한 외부 협력 경험도 축적돼 있다. 대면적 투명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초대면적 Air Floating Coater, OLED 저온공정용 고해상도 잉크젯, 고극률 비정형 디스플레이용 다축 슬릿코터, 고효율 고로딩 전극 건조시스템 등 디스플레이와 이차전지의 차세대 공정기술을 중심으로 장기간 정부과제를 수행해 왔다. 현재도 접착 레진의 외관품위 및 두께 균일도를 개선하기 위한 소재·코팅 공정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연구개발 범위가 장비 구조뿐 아니라 소재 특성과 실제 공정조건 최적화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 지식재산권 현황

동사의 지식재산권은 연구실 단계의 기초기술보다는 실제 장비의 정밀도·생산성·양산 안정성을 높이는 공정 및 장치 기술을 중심으로 축적돼 있다. 주요 권리영역은 슬릿다이와 약액 공급·정량도포, Air Floating 기관 이송, 열처리 챔버, 잉크젯 노즐·토출 및 열라인 제어, R2R·Offset 인쇄, 기관 합착, 곡면 디스플레이, 배터리 전극 코팅·건조 등으로 구성된다. 이는 동사의 지식재산 전략이 단일 원천기술을 보호하기보다 코팅·인쇄·열처리·합착 등 핵심 장비의 세부 요소와 공정제어 기술을 다층적으로 권리화하는 방식에 가깝다는 점을 보여준다.

최근 권리화 방향은 사업 포트폴리오 변화와도 연결된다. 기존 디스플레이용 코팅·열처리·인쇄 기술에 더해 복수 기관 동시 코팅, 가변폭 코팅노즐, Multi-Die Coater, 곡률편차 기재 코팅 및 곡면 합착 등 비정형·고생산성 공정 관련 권리가 추가되고 있으며, 이차전지 분야에서도 전극 시트 건조, 광원 다채널 Power 제어 및 전극 제조공정 관련 권리가 확대되고 있다. 잉크젯 분야 역시 노즐의 단순 구조보다 토출상태와 메니스커스를 검사·보정하는 제어기술로 권리 범위가 고도화되고 있어, 지식재산 포트폴리오가 기존 주력장비의 방어뿐 아니라 신규 사업의 기술진입 기반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표권은 ‘나래나노텍’, ‘NARAE NANOTECH’ 등 국·영문 회사명과 브랜드를 중심으로 등록돼 있으며, 주요 장비사업과 연계되는 기계류 상품분류에서 권리를 확보하고 있다. 특허가 장비와 공정기술의 기술적 진입장벽을 형성한다면, 상표권은 해외 고객과의 장기 프로젝트 및 장비 공급 과정에서 기업·제품의 식별성과 브랜드 자산을 보호하는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PEST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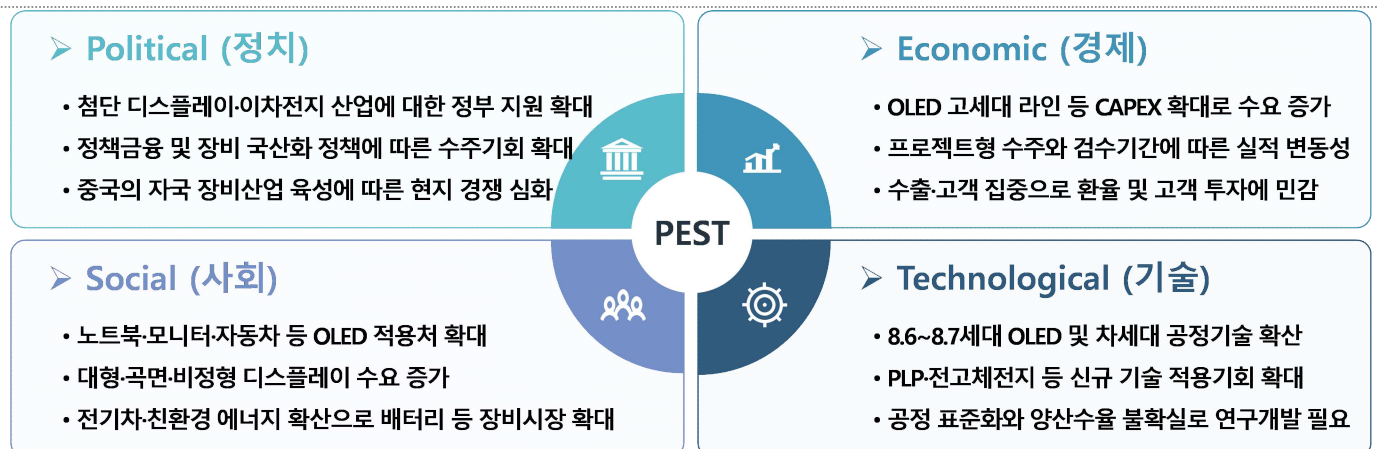
정부가 OLED를 포함한 첨단 디스플레이와 이차전지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면서 설비투자·연구개발·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있고, 2026년 차세대 OLED 기술 고도화를 위한 국내 대규모 설비투자에 정책금융 지원이 결정되는 등 패널업체의 신규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이 강화되고 있다. 이는 OLED 코팅·포토 장비뿐 아니라 배터리·반도체 등 첨단 제조장비의 국산화 수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중국 역시 디스플레이 산업과 자국 장비 공급망을 적극 육성하고 있어, 중국 패널업체의 설비투자 확대는 신규 수주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현지 장비업체와의 기술·가격 경쟁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장비산업은 일반 소비재보다 고객사의 CAPEX와 투자주기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시장으로, OLED 고세대 라인과 신규 반도체·배터리 생산설비 투자가 확대될 경우 수주 기회가 크게 증가하지만 경기 둔화나 투자비용 상승 시에는 발주가 빠르게 지연될 수 있다. 특히 대형 장비는 수주에서 설치·검수까지 평균 1년 이상이 소요되고 고객 집중도와 수출 비중도 높은 만큼 고객의 투자계획 변경, 검수 지연, 환율 변동 등이 분기별 실적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최근 OLED 제조장비 투자가 확대되는 환경은 긍정적이나, 실제 고객의 발주 지속성과 수주잔고의 매출 전환 속도가 동사의 실적 안정성을 결정하는 핵심 경제요인으로 판단된다.

디스플레이 수요는 스마트폰 중심에서 노트북·모니터·자동차용 디스플레이로 확대되면서 OLED의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며, 특히 대형·고해상도·곡면 및 비정형 디스플레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대면적 코팅, 정밀 합착, 잉크젯 및 Free Shape 디스플레이 장비와 같은 기술의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동시에 전기차와 ESS 확산,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따라 이차전지와 차세대 태양전지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여 정밀 코팅기술의 활용처가 타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다만 최종 소비시장 수요가 위축될 경우 패널 및 배터리 업체의 설비투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수요 확대가 실제 장비 발주로 이어지는 시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OLED 생산기술은 대형 기관 적용, 포토 패터닝과 잉크젯 방식의 도입 등으로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으며, 반도체의 PLP, 이차전지의 건식전극·전고체전지, 태양전지에서는 페로브스카이트 등 새로운 제조기술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정밀 코팅·도포, 포토, 열처리·건조, 잉크젯, 합착 기술을 보유한 동사가 디스플레이 기술을 신규 산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차세대 공정은 아직 기술방식 간 경쟁이 진행되고 있고 양산수율과 표준화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특정 기술에 대한 투자가 지연되거나 다른 공정으로 대체될 위험도 존재한다.

[그림 4] PEST 분석



자료: 서울평가정보(주)

IV. 재무분석

수주 확대를 기반으로 외형 회복과 유동성 개선 진행

동사의 매출액은 2023년 529.3억 원에서 2024년 404.3억 원으로 감소한 후 2025년 545.0억 원으로 반등하며 외형 회복세를 나타냈다. 영업손익은 2023년 -149.9억 원, 2024년 -221.1억 원에서 2025년 -88.4억 원으로 적자 폭이 축소되었으며, 2026년 상반기에는 36.6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하였다. 당기순이익 역시 2025년 399.6억 원의 흑자로 전환된 데 이어 2026년 상반기 159.4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해 수익성 개선 흐름이 이어졌다. 재무안정성 측면에서는 2025년 차입금 축소와 자본 확충에 힘입어 부채비율이 70.8%로 개선되었으며, 2026년 상반기에는 15.5%까지 하락하였다. 같은 기간 유동비율은 484.2%, 자기자본비율은 86.6%로 나타나 단기 지급 능력과 자본구조 모두 안정적인 수준을 확보하였다.

■ 기존사업 안정화와 신규사업 성장으로 외형 반등

동사의 매출액은 2023년 529.3억 원, 2024년 404.3억 원으로 23.6% 감소한 뒤, 2025년 545.0억 원으로 34.8% 증가하였다. 2024년에는 주요 고객사의 투자 연기와 디스플레이 시장 둔화 영향으로 외형이 위축되었으나, 2025년에는 해외 고객사 신규 수주 증가를 중심으로 매출이 회복되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디스플레이] 부문은 2023년 393.8억 원에서 2024년 207.2억 원으로 47.4% 감소하였으나, 2025년에는 459.4억 원으로 121.7% 증가하며 큰 폭의 회복세를 나타냈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4년 51.3%에서 2025년 84.3%로 확대되어 동사의 핵심 매출 기반으로 높은 영향력을 유지하였다. [배터리] 부문은 2023년 27.7억 원에서 2024년 99.2억 원으로 크게 성장한 이후 2025년 56.3억 원으로 감소하였으나, 2023년 대비로는 확대된 수준을 유지하였다. [반도체] 부문은 2023년 77.9억 원에서 2024년 10.8억 원, 2025년 1.6억 원으로 감소하면서 2025년에는 매출 기여도가 축소되었다. [신사업] 부문은 2023년 3.6억 원에서 2024년 48.8억 원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나 2025년에는 2.2억 원으로 감소해 변동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배터리·반도체·신사업 부문은 특정 연도에 매출이 집중되는 모습을 보여 장비 공급 및 매출 인식 시점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기타] 부문 매출은 2023년 20.7억 원, 2024년 9.2억 원, 2025년 7.9억 원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며, [상품 및 기타] 부문 매출은 같은 기간 5.6억 원, 29.1억 원, 17.6억 원으로 변동하였다.

2026년 상반기 매출액은 379.6억 원으로 전년 동기 285.4억 원 대비 33.0% 증가하며 외형 회복세가 이어졌다. 디스플레이 부문이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유지한 가운데, 반도체 부문은 43.2억 원, 신사업 부문은 51.6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비디스플레이 부문의 매출 기여도가 크게 확대되는 등 사업 다각화 성과가 가시화되었다. 상반기 수주잔고도 367.8억 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동사가 OLED·반도체 PLP·이차전지·태양전지 등으로 사업영역을 지속 확대하고 있어 하반기에도 수주 물량의 매출 전환과 신규 사업부문의 성장을 기반으로 외형 확대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2026년 상반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으로 수익구조 개선

동사의 3개년 영업손실은 2023년 149.9억 원, 2024년 221.1억 원에서 2025년 88.4억 원으로 축소되었다. 영업이익률은 각각 -28.3%, -54.7%, -16.2%로 나타나 2025년에 회복되었다. 주력 코팅장비 매출 회복과 전체 매출 증가가 원가 부담을 흡수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2025년 매출원가는 495.7억 원으로 매출 원가율은 91.0% 수준이었으며, 판매비와관리비는 137.6억 원을 기록하였다. 2025년 기준 정상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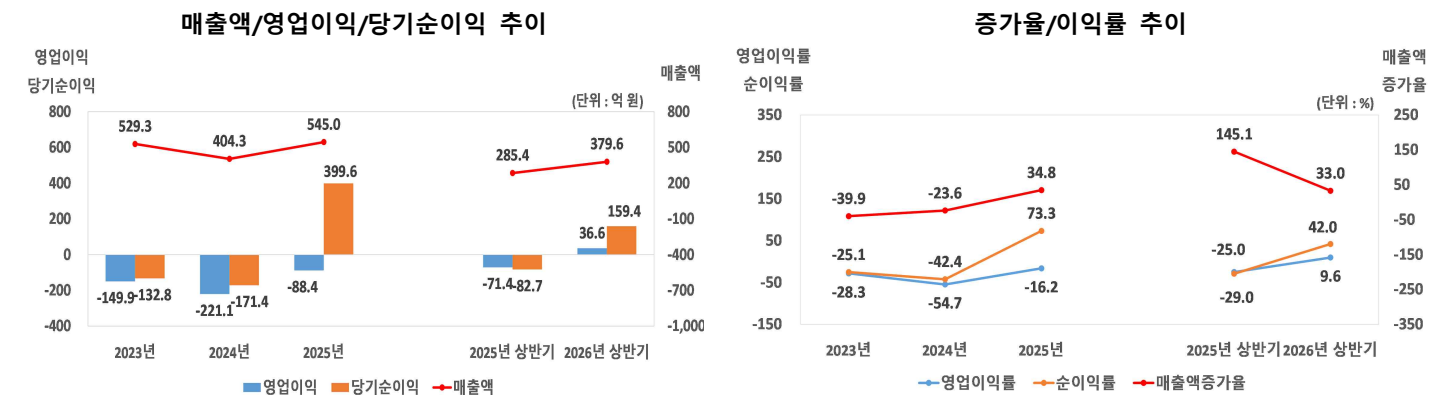
개발비를 매출원가에서 관관비로 재분류하였으며, 연구개발비는 정부보조금 차감 전 기준 2023년 78.6억 원, 2024년 71.9억 원, 2025년 57.4억 원으로 감소하였고 매출액 대비 비율도 14.9%, 17.8%, 10.5%로 나타났다. 연구개발 부담은 완화되었으나 배터리·잉크젯·태양전지 등 신규 장비 개발을 지속하고 있어 향후에도 일정 수준의 개발비 부담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기순이익은 2023년 -132.8억 원, 2024년 -171.4억 원에서 2025년 399.6억 원으로 대규모 흑자 전환하였으며, 순이익률도 -25.1%, -42.4%, 73.3%로 개선되었다. 2025년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효과로 기타수익 643.3억 원이 반영되며 흑자를 기록하였다.

2026년 상반기 영업이익은 36.6억 원, 당기순이익은 159.4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적자에서 모두 흑자 전환하였다. 매출 확대와 매출총이익 개선에 힘입어 영업 수익성이 본격적으로 회복된 가운데, 당기순이익에는 기타이익 증가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비경상손익에 의존했던 과거와 달리 영업이익 자체가 흑자로 전환되는 등 향후 수익성 개선 흐름의 여지가 보인다. 향후 디스플레이 부문의 안정적인 매출 기반과 반도체·신사업의 외형 확대가 지속될 경우 매출 증가에 따른 이익 창출력 개선과 수익성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5] 동사 연간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반기보고서(2026.08),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안정적인 유동성과 낮아진 부채 부담으로 재무기반 강화

동사의 3개년 자산총계는 2023년 1,730.5억 원, 2024년 1,734.3억 원, 2025년 1,987.5억 원으로 유동자산은 2024년 510.8억 원에서 2025년 1,305.3억 원으로 크게 증가한 반면 비유동자산은 1,223.5억 원에서 682.2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유동비율은 2023년 101.6%에서 2024년 60.4%로 하락하였다가 2025년 164.6% 수준으로 크게 개선되었다.

부채총계는 2023년 795.0억 원에서 2024년 969.9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나 2025년에는 824.0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총차입금은 2023년 644.0억 원에서 2024년 796.5억 원으로 증가한 뒤 2025년 627.9억 원으로 축소되었다. 2025년 말 단기차입금 및 유동성장기차입금은 616.9억 원으로 여전히 차입금 대부분이 1년 이내 상환구조에 집중되어 있으나, 비유동 장기차입금은 11.0억 원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또한, 동사는 토지 보상대금을 재원으로 2026년 상반기 일부 차입금을 추가 상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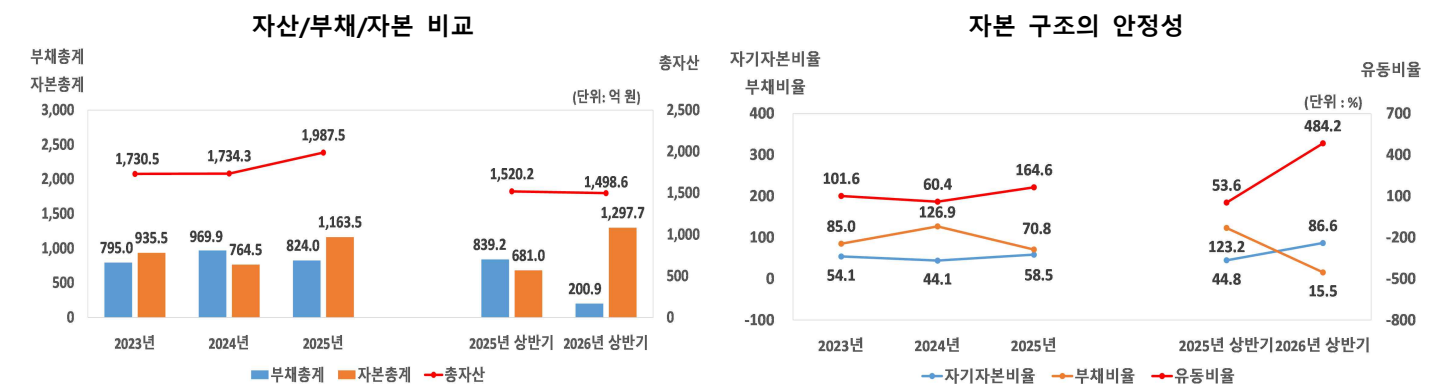
나래나노텍(137080)

자본총계는 2023년 935.5억 원에서 2024년 764.5억 원으로 감소한 뒤 2025년 1,163.5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은 2023년 85.0%에서 2024년 126.9%까지 상승하였으나 2025년 70.8%로 개선되었으며, 자기자본비율은 2023년 54.1%, 2024년 44.1%, 2025년 58.5%로 나타났다. 2025년 당기순이익이 자본 확충에 직접 반영되며 재무구조가 회복되었다.

2026년 상반기 유동비율은 484.2%, 부채비율은 15.5%, 자기자본비율은 86.6%로 나타나 재무안정성이 강화되었다. 상반기 중 단기차입금과 장기차입금이 모두 상환되면서 차입금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으며, 영업활동현금흐름이 127.3억 원의 흑자를 유지하고 현금성자산도 확대된 만큼, 향후 신규 장비 개발과 수주 대응에 필요한 재무적 여력은 이전보다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6] 동사 연간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반기보고서(2026.08),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표 4] 동사 연간 요약 재무제표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항목	2023년	2024년	2025년	2025년 상반기	2026년 상반기
매출액	529.3	404.3	545.0	285.4	379.6
매출액증가율(%)	-39.9	-23.6	34.8	145.1	33.0
영업이익	-149.9	-221.1	-88.4	-71.4	36.6
영업이익률(%)	-28.3	-54.7	-16.2	-25.0	9.6
순이익	-132.8	-171.4	399.6	-82.7	159.4
순이익률(%)	-25.1	-42.4	73.3	-29.0	42.0
부채총계	795.0	969.9	824.0	839.2	200.9
자본총계	935.5	764.5	1,163.5	681.0	1,297.7
총자산	1,730.5	1,734.3	1,987.5	1,520.2	1,498.6
유동비율(%)	101.6	60.4	164.6	53.6	484.2
부채비율(%)	85.0	126.9	70.8	123.2	15.5
자기자본비율(%)	54.1	44.1	58.5	44.8	86.6
영업현금흐름	-287.8	-170.0	137.0	125.4	127.3
투자현금흐름	188.2	36.1	0.5	2.0	544.3
재무현금흐름	86.9	150.6	-170.5	-105.0	-653.9
기말현금	28.0	44.7	11.7	66.5	29.3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반기보고서(2026.08),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동사 실적 전망

디스플레이 부문은 실적의 안정적인 기반 역할을 지속할 전망으로, 매출은 2025년 459.4억 원으로 회복되었고, 2026년에는 490.0억 원 수준이 예상된다. IT용 고세대 OLED 생산라인 투자와 중국 패널업체의 OLED 설비투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동사의 정밀 코팅·포토·잉크젯 장비가 관련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핵심 사업의 기반을 유지하는 역할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추가 성장을 위해서는 신규 OLED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지속적인 수주 확보가 중요하다.

반도체 부문 매출은 2023년 77.9억 원에서 2025년 1.6억 원으로 축소됐으나 2026년에는 100.0억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사는 디스플레이에서 확보한 대면적 정밀 코팅기술을 PLP 반도체 패키징 공정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관련 장비의 고객 적용이 실제 매출로 전환될 경우 사업 다각화의 의미가 커질 수 있다. 다만 연도별 실적 편차가 컸던 만큼 현재 예상치는 특정 프로젝트의 매출 인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가능성이 있어, 향후 반복 발주와 고객사 확대 여부를 통해 지속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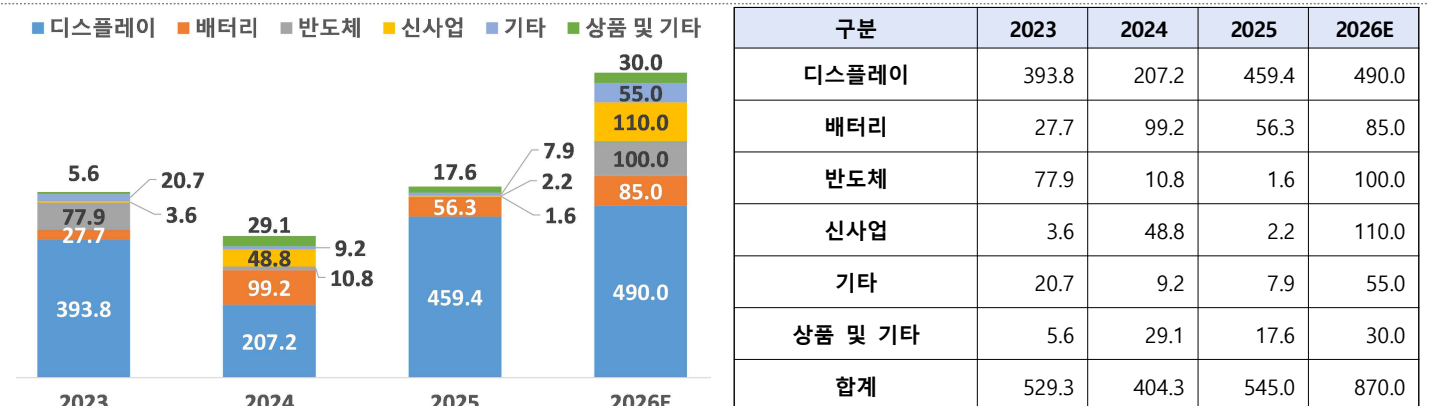
신사업 매출은 2025년 2.2억 원까지 감소했으나 2026년에는 110.0억 원으로 증가가 예상된다. 동사가 추진하는 자동차용 Free Shape 디스플레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Smart Window 등 기존 정밀 코팅·인쇄·합착 기술을 새로운 전방산업에 적용하는 분야라는 점에서 장기적인 사업영역 확대와 연결된다. 2026년 예상치가 현실화될 경우 신사업이 연구개발 영역을 넘어 실질적인 매출원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나, 신규 분야 특성상 초도 장비 공급 이후 반복 수주와 양산라인 채택 여부가 중장기 사업성을 좌우할 것이다.

배터리 부문 매출은 2025년 56.3억 원으로 감소했으나 2026년에는 85.0억 원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동사는 습식 전극 코팅뿐 아니라 건식전극·전고체전지용 코팅과 광건조 등 차세대 공정기술을 개발하고 있어 배터리 업체의 신규 공정투자가 확대될 경우 추가 장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 다만 차세대 배터리 공정의 양산 전환 시점과 고객의 투자일정이 불확실하므로 단기 성장보다 중장기 기술 적용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사의 전체 매출은 2025년 545.0억 원에서 2026년 870.0억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은 기존 OLED 디스플레이 장비의 안정적인 사업기반 위에 반도체와 신사업이 새로운 성장축으로 가세하면서 사업 포트폴리오의 다변화가 본격화될 수 있는 시기로 판단된다. 다만 반도체와 신사업의 실적 변동성이 크고 프로젝트 일정에 따라 매출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실적의 질적 개선 여부는 신규 부문의 반복 수주, 고객 다변화 및 예정된 장비의 적기 검수·매출 전환 여부가 핵심 관찰요인이 될 전망이다.

[그림 7] 동사 연간 실적 전망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반기보고서(2026.08),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OLED 기반 정밀 공정기술을 바탕으로 신사업·해외시장 확대와 주주환원 강화를 병행 중

동사는 기존 OLED 장비 중심의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정밀 코팅·건조·인쇄 기술 기반의 반도체 패키징, 이차전지, 자동차 전장,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미국·폴란드 등 해외 고객 대응 거점도 강화됐다. 향후에는 고세대 IT OLED 설비투자 확대와 PLP, 차세대 배터리, 태양전지 공정의 상용화가 성장기회로 작용할 수 있으나, 신규 사업의 반복 수주와 양산 적용 여부, 중국 현지 장비업체와의 경쟁 심화는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2026년부터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면서 주주환원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 최근 변동사항

동사는 사업 다각화의 방향이 적용 산업별 사업체계로 보다 구체화되어, 습식·건식 전극 코팅 및 광건조, PLP 반도체 패키징, 페로브스카이트 코팅·프린팅, 자동차용 Free Shape 디스플레이 등으로 제품과 적용시장이 보다 명확하게 구분됐다. 최근에는 PLP 장비의 해외 공급과 미국 태양광 업체 대상 페로브스카이트 코팅·건조장비 공급이 추진 중으로 일부 신규 사업은 연구개발에서 고객 적용 단계로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해외 거점도 단순 법인 보유에서 현지 고객 대응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 2026년에는 현지 고객 대응 효율화를 위해 2024년 설립된 기존 텔라웨어 법인을 청산하고 애리조나주에 새로운 미국 법인을 설립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디스플레이 고객 대응, 폴란드는 배터리 생산 및 유럽 고객 지원, 미국은 신규 고객 대응이라는 지역별 기능 분화가 진행되는 모습이다.

동사는 2026년 3월 20억 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해 349,473주를 취득한 뒤, 전량 소각했다. 이는 배당가능 이익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없애는 방식으로 자본금은 줄지 않고 발행주식 수만 감소되었다. 2026년 6월에도 20억 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고, 발행주식의 3.38%에 해당하는 361,983주를 취득했다. 두 번째 취득도 소각을 염두에 둔 단기계획으로 제시됐지만, 추가 소각은 별도의 이사회 절차가 필요하고 장기간에 걸친 정례적 자기주식 취득·소각 정책은 아직 확정돼 있지 않다. 따라서 최근 주주환원은 자기주식 매입 후 소각에 무게를 둔 적극적 자본정책으로 전환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으나, 이를 상시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보기 위해서는 향후 추가 소각과 중장기 환원정책의 제도화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향후 전망

주력 사업에서는 IT용 고세대 OLED 투자 확대가 가장 중요한 기회요인으로 판단된다. 글로벌 디스플레이 장비 투자는 LCD보다 OLED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흐름이며, 특히 8.6~8.7세대 IT OLED 생산라인과 함께 포토 패터닝, RGB 잉크젯 등 새로운 픽셀 형성방식의 적용이 진행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도 8.6세대 IT OLED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Visionox·CSOT·Tianma 등의 OLED 신규 프로젝트가 장비투자를 견인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대면적 정밀 코팅, 포토 및 잉크젯 기술을 보유한 동사의 사업영역과 기술적으로 맞닿아 있어 중장기 장비 수요환경에는 긍정적이다. 다만 전체 OLED 설비투자가 모두 동사의 수주대상인 것은 아니며, 신규 공정의 양산수율과 패널업체별 기술선택에 따라 실제 수혜 범위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신규 성장축에서는 반도체 패키징과 태양전지가 기존 디스플레이 기술의 사업 확장 가능성을 확인하는 분야가 될 것으로 보인다. PLP는 사각형 패널에 정밀 코팅과 건조공정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동사가 축적한 대면적 코팅기술과의 연관성이 높고,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역시 기능성 소재의 균일 도포와 건조·경화가 핵심 공정이어서 기존 기술자산을 활용하기에 유리하다. 경영진은 최근 외부 인터뷰에서 PLP 코팅·건조장비의 해외 공급과 미국 태양광 고객에 대한 페로브스카이트 장비 공급을 언급하고 있어 초기 고객 적용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향후에는 최초 장비 공급 자체보다 고객의 후속 투자에서 동일 장비가 반복적으로 채택되는지, 추가 고객으로 레퍼런스가 확산되는지가 사업 다각화의 성과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이차전지는 단기적인 수주 확대보다 차세대 공정기술 확보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동사는 기존 습식 전극 코팅에서 건식 전극과 전고체전지용 코팅, 광원을 이용한 고속 건조기술까지 개발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Flash 광원을 활용한 고로딩 전극 건조 관련 연구개발도 진행해 왔다. 배터리 산업이 건식전극과 전고체전지 등 새로운 제조공정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기술이 실제 양산라인에 채택될 경우 디스플레이와 별개의 성장축을 형성할 수 있다. 반면 차세대 배터리 공정은 기술표준과 양산시기가 아직 변화하는 단계이므로, 개발 완료나 고객 테스트가 곧바로 대규모 장비 수요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 양산 적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해외시장에서는 중국 디스플레이 투자와 미국·유럽 신사업 고객 확보가 동시에 중요해질 전망이다. 중국은 글로벌 OLED 생산설비 투자의 핵심 지역 가운데 하나로 신규 생산라인 구축이 이어지고 있어 동사의 디스플레이 장비 수주 기회를 확대할 수 있지만, 현지 장비업체의 기술 내재화가 진행될수록 가격과 기술경쟁도 함께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 법인 재편과 폴란드 제조·C/S 거점 운영은 이러한 해외 고객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사업 다각화가 성공하려면 장비 판매뿐 아니라 설치·검수·사후지원까지 현지에서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주주환원 측면에서는 2026년 자기주식 취득과 소각이 일회성 조치에서 지속적인 자본정책으로 발전하는지가 주요 확인사항이다. 한 차례 취득분을 전량 소각한 후, 다시 자기주식을 취득했다는 점은 과거 배당 공백기와 비교하면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경영진의 태도가 적극적으로 변화했음을 보여준다. 다만 장기적인 자기주식 취득·처분·소각 계획이 별도로 확정돼 있지 않으므로, 현재 보유 자기주식의 추가 소각 여부와 향후 현금배당·자기주식 취득을 포함한 정례적인 주주환원 원칙이 마련되는지가 정책의 지속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하면 동사는 OLED 중심 장비업체에서 정밀 코팅·건조·인쇄 기술을 공통 기반으로 반도체, 태양전지, 이차전지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전환 과정에 있다. 외부 환경은 고세대 OLED 투자와 차세대 반도체·에너지 공정 확대라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영체제와 해외거점도 이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다만 장비사업은 고객사의 투자결정부터 장비 제작·설치·검수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프로젝트형 산업이므로, 신규 사업의 첫 공급이나 시장의 투자계획만으로 성장의 지속성을 판단하기보다는 반복 수주, 고객 다변화, 신규 공정의 양산 채택 및 자기주식 소각을 포함한 자본정책의 지속 여부를 중심으로 향후 변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나래나노텍(137080)

증권사 투자의견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N/A	-	-	-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자료: 네이버증권(2026.08.20)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7

기업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나래나노텍	O	X	X

* 2026년 6월 17일 특정계좌(군) 매매관여 과다 및 소수계좌 거래집중 사유로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음.

* 2026년 6월 19일 특정계좌(군) 매매관여 과다 사유로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음.